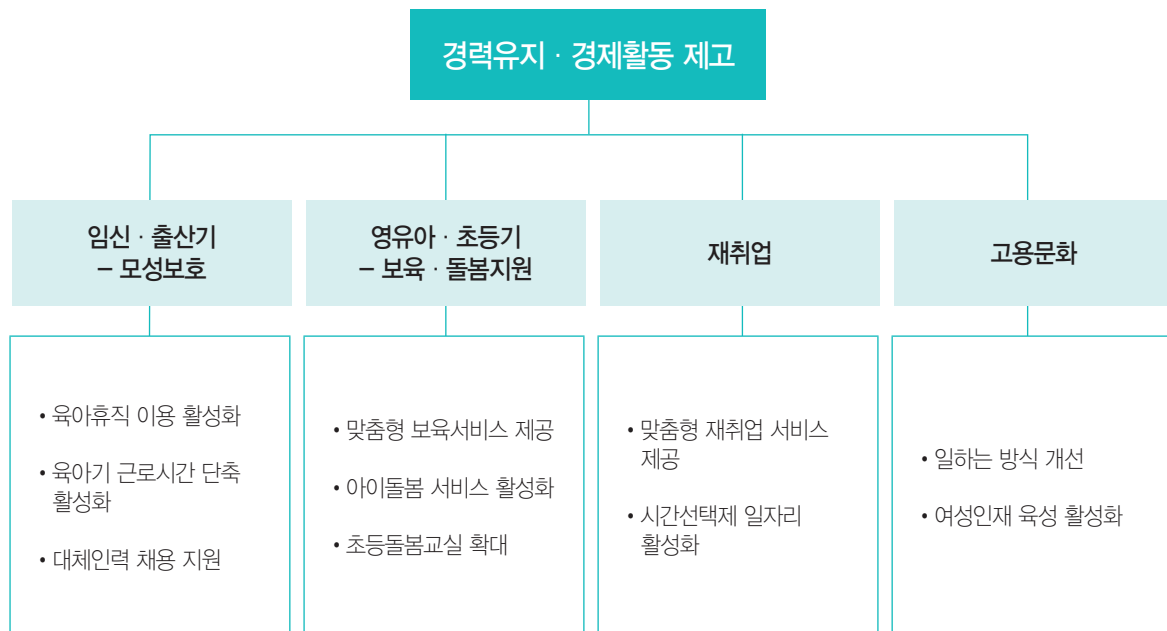


정부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종합대책(2014.2) 국민의견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에 앞서 정부 합동 「일 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정부 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이 되기 위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
- 본 조사는 2014. 4. 18 ~ 4. 23에 걸쳐 전국 15개 광역 시도(제주제외)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4. 2. 4_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_ 보도자료 재구성

〈그림 1〉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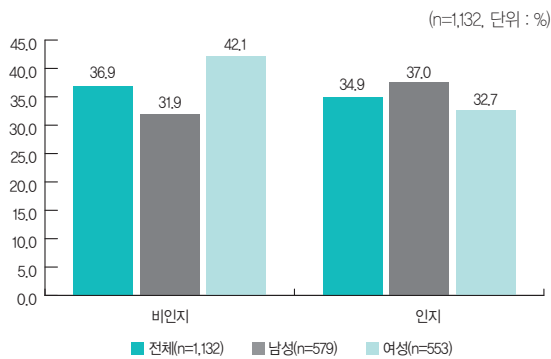


I.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이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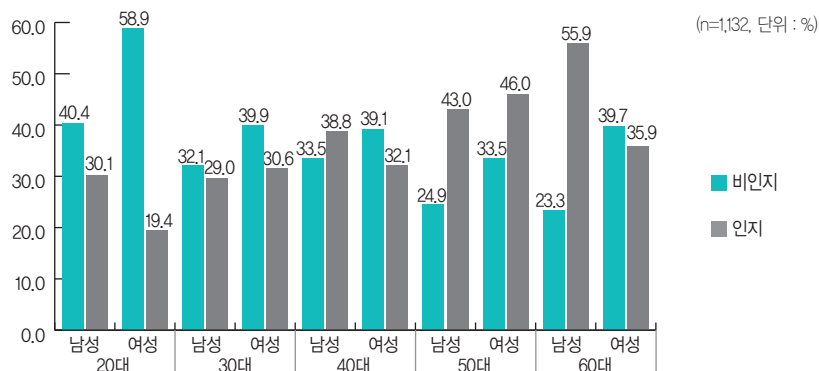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보다 미혼이 낮게 나타나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여성 32.7%〈남성 37.0%〉).



〈그림 2〉 종합대책에 대한 성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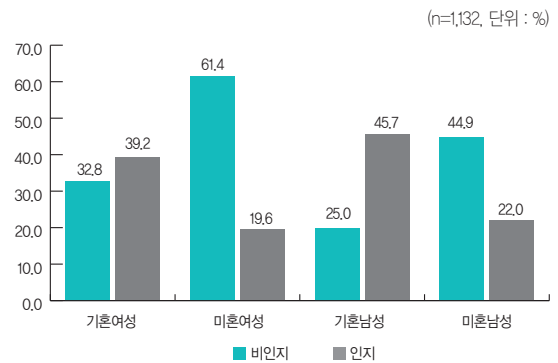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4.7%, 30대 30.3%, 40대 35.6%, 50대 44.4%, 60대 45.9%로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단, 남성의 경우 30대(29%)에서 가장 낮



〈그림 3〉 종합대책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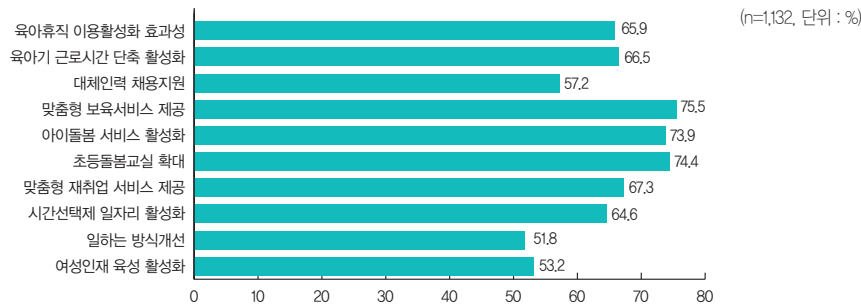
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 20대(19.4%)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른 인지도는 기혼의 경우, 59.5%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은 28.4%만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19.6%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미혼 여성 19.6%〈기혼여성 39.2%〉).



〈그림 4〉 종합대책에 대한 결혼상태별 인지도

1)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모른다, 2=모른다, 3=보통이다, 4=알고 있다, 5=매우 잘 알고 있다)로 평가함. 비인지는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의 합으로, 인지는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합으로 측정함.



〈그림 5〉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II.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의 기대효과²⁾

이슈 # 2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 중 기대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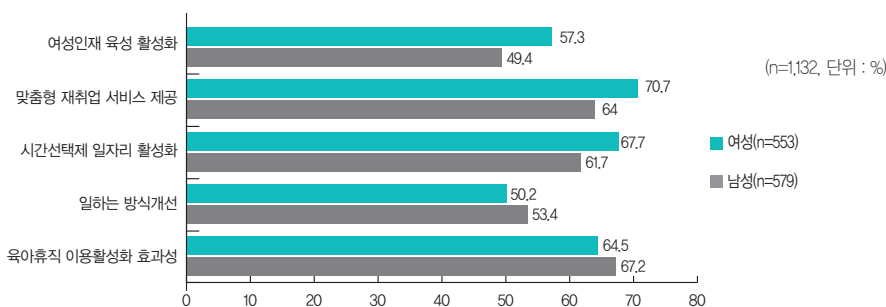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 중 기대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꼽힘.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74.4%)’,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73.9%)’ 순으로 나타남. 위 과제는 모두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의 주요 과제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 성별에 따른 기대효과 예측의 경우, 여성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77.7%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남성은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20대 70.6%, 40대 75.9%), 30대와 60대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30대 74.3%, 60대 84.4%)’, 50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82.3%로 기대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남.

이슈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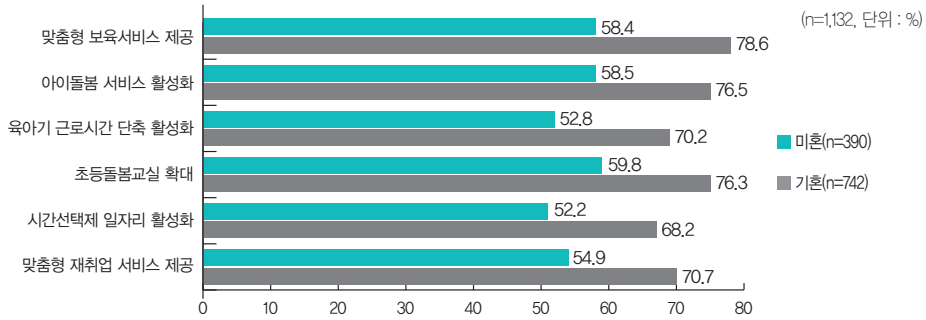
남녀간 추진과제의 기대효과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 정책은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여성 57.3%>남성 49.4%)’,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여성 70.7%>남성 64%)’,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여성 67.7%>남성 61.7%)’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난 정책은 ‘일하는 방식 개선(여성 50.2%<남성 53.4%)’,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여성 64.5%<남성 6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여성 65.9%<남성 67.1%)’로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 성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2) 기대효과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2=도움 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도움 된다, 5=매우 도움 된다)로 평가함. 부정음은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와 ‘도움 되지 않는다’의 응답을 합으로, 긍정은 ‘도움 된다’와 ‘매우 도움 된다’의 응답을 합으로 측정함.



〈그림 7〉 혼인 상태별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의 기대효과 차이

이슈 # 4

생애주기별 추진과제의 기대효과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결혼상태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모든 주요 과제에 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 추진과제의 기대효과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과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기혼78.6%>미혼58.4%),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기혼76.5%>미혼5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기혼70.2%>미혼52.8%), '초등돌봄교실 확대'(기혼76.3%>미혼59.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기혼68.2%>미혼52.2%),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기혼70.7%>미혼52.6%) 순으로 나타남.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과제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7〉

-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25.5%),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17.0%),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13.7%)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 성별에 따른 순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나타남.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순위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꼽았음. 단, 20대의 경우 2순위로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지원정책'을 꼽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Ⅲ 생애주기 단계별 시급한 정책

이슈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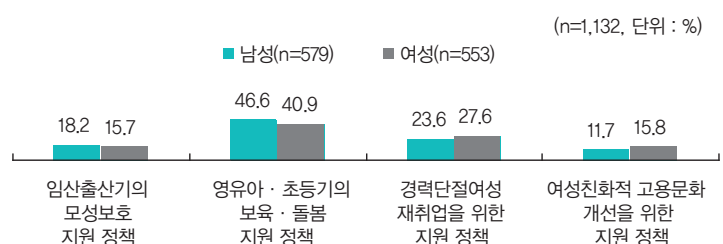
영유아·초등기 보육 돌봄지원정책이 생애주기 단계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이슈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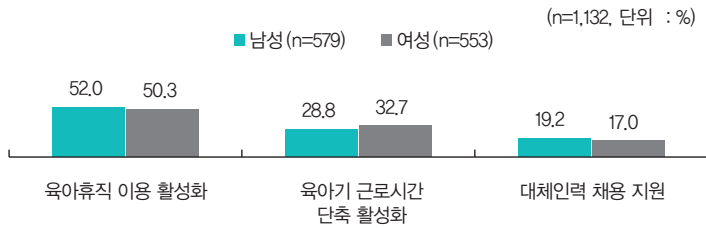
생애주기 단계별 가장 시급한 과제

☑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

-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51.2%)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30.7%), '대체인력 채용 지원'(1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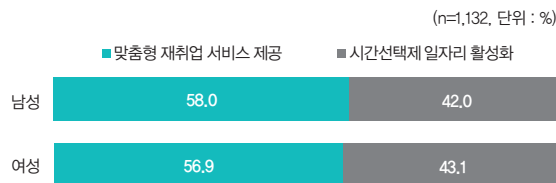


〈그림 8〉 생애주기 단계별 가장 시급한 정책 순위



〈그림 9〉 임신·출산기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의 시급한 과제 순위

- 여성, 남성 모두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음(남성 52.0%, 여성 50.3%). 전 연령대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60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20대: 55.7%, 30대: 51.1%, 40대 52.0%, 50대: 44.5%, 60대: 56.5%) 〈그림 9〉



〈그림 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시급한 과제 순위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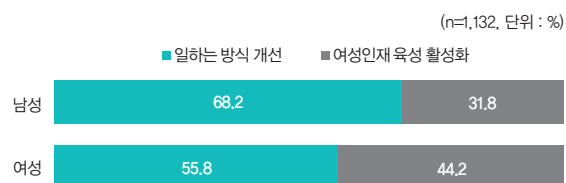
-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41.7%)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39.8%), ‘초등돌봄교실 확대’(18.5%)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 살펴볼 때, 60대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으나(49.0%)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남. 〈그림 1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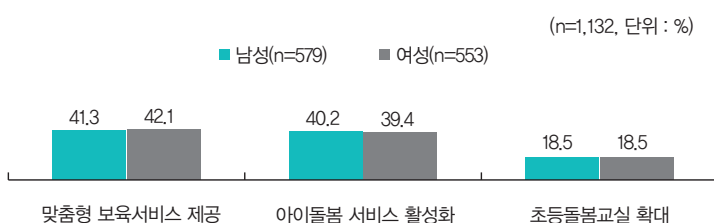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57.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42.6%로 나타남.
-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아짐을 보임.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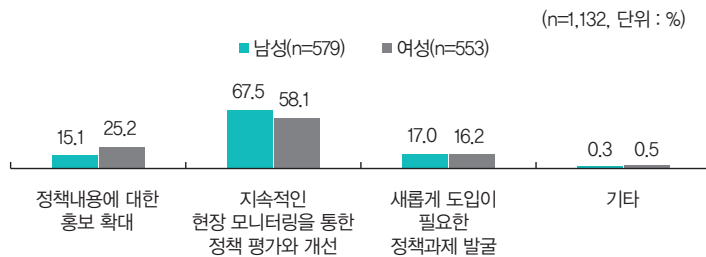
-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하는 방식 개선’(62.1%)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37.9%) 과제로 나타남.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급한 과제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남성 68.2% 여성 55.8%).



〈그림 12〉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시급한 과제 순위



〈그림 10〉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 정책의 시급한 과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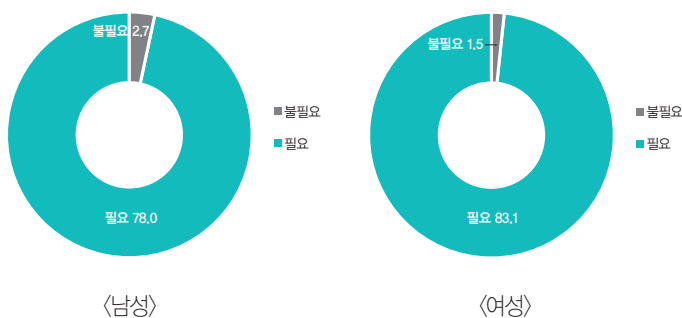
〈그림 13〉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Ⅳ.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필요사항

이슈 # 7

국민체감형 정책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의 통한 정책 평가와 개선' 꼽아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평가와 개선'(63.0%)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정책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20.0%),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16.6%),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 현장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³⁾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83.1%가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4〉 현장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

Ⅴ. 요약 및 결론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방안의 기대효과와 필요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영유아·초등기의 보육·돌봄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34.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함.
- 둘째,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중 영유아·초등기의 보육 및 돌봄 정책에 관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75.5%), '초등돌봄 교실 확대'(74.4%),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73.9%) 과제는 모두 매우 높은 기대효과와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특히, 영유아·초등기의 보육 및 돌봄 정책에 대하여 50~60대의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는 혹은 양육 예정인 조부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3) 모니터링 점검의 필요성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로 평가함. 부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다'의 응답률 합으로, 긍정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률 합으로 측정함.

- 셋째, 남녀 간 인식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 인재 육성 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을 높게 평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일하는 방식 개선',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생애주기별 추진과제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기혼이 미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모든 추진과제에 대하여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정책의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20%p가 넘는 차이를 보여 결혼상태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보임.

- 다섯째,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평가와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유연한 제도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임.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사업 목적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부는 지난 2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함. 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재취업 정책 등에서 더 나아가 보육·돌봄정책, 사회문화 조성 등 기반 구축에서 여성고용을 고려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정부 합동 「일 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_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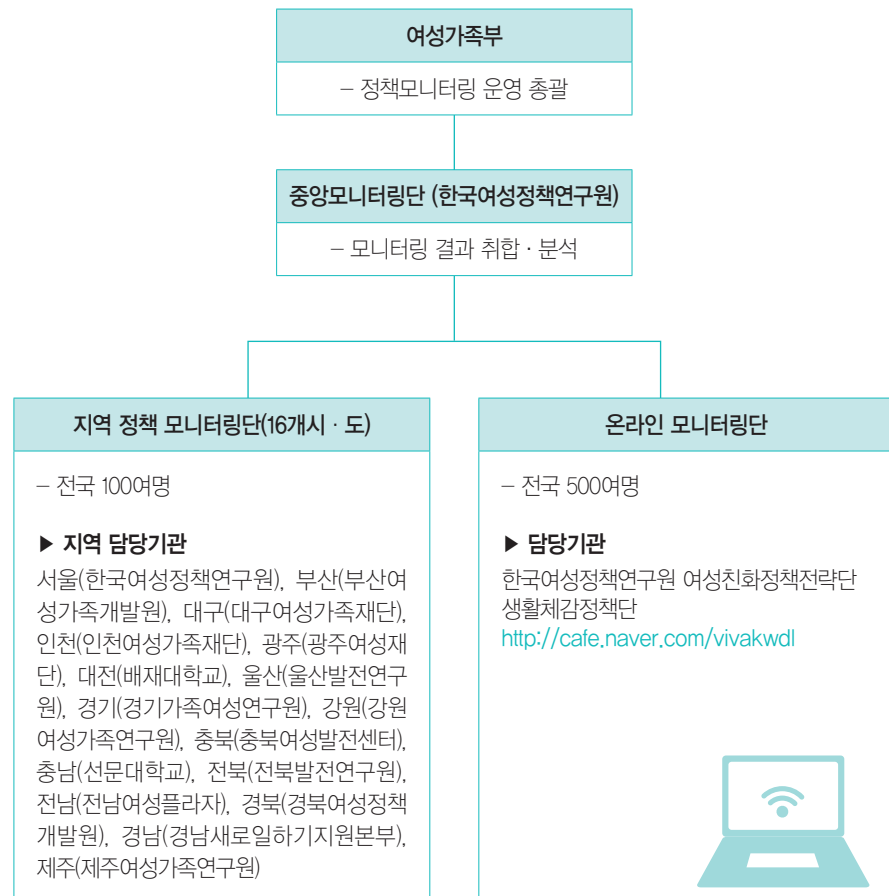
생애주기	정책과제	관계부처
임신·출산기 - 모성보호	1.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한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유도 •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고용부, 기재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기재부
	3. 대체인력 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사업주 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하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고용부, 안행부, 기재부
영유아·초등기 - 보육·돌봄지원	1.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보육반 설치 •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상세 정보공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2.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이용단가를 현실화하여 부족한 돌봄비 공급 확대 • 영아 종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업모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 	여가부, 기재부
	3. 초등돌봄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 제공 • 추가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자녀 등)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 제공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재취업	1.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 신설(리턴십) • 경력단절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세액공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제정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고용문화	1. 일하는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 도입 	고용부, 안행부 여가부, 기재부
	2. 여성인재 육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하도록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여성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인재 DB 관리 	여가부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목적 및 추진체계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은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형 정책이 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정책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집필 : 남궁윤영 연구원)